

제주연구원
산동사회과학원 기관 협력 및 현지시찰
공무출장 결과 보고서

2024. 9.

목 차

I. 출장개요	1
1. 출장 목적	1
2. 출장 지역	1
3. 출장단	2
4. 출장 일정	2
5. 방문지역 개황	3
II. 출장내용	4
1. 산둥재경대학교(山东财经大学)	4
2. 산둥사회과학원(山东社会科学院)	6
3. 현지시찰	18
III. 시사점	20
1. 산둥재경대학교: 협력 체결 및 확대 필요	20
2. 산둥사회과학원: 실질적 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 고도화	21

I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국 산둥성 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제주·산둥 교류 주간 행사가 제주도에서 개최되고 양 지역 정부 부서 및 산학연 등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산둥성은 중국 내에서 경제, 사회, 해양산업, 미래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산업, 신산업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와 산둥성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양 지역 간의 산업 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선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제주연구원 및 산둥사회과학원은 2024년 7월 1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공동으로 모색 및 추진하고자 함
 - 이러한 배경 하에 제주연구원 및 산둥사회과학원은 8월 29일 중국 산둥사회과학원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 동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행사업 “2024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수행함에 따른 행사이며, 제주-산둥 간 문화관광 및 미래 신산업 분야의 교류 확대 및 산업협력 수준 강화를 목적함
 - 동 세미나는 공동 세미나이며, 제주 및 산둥의 공동 관심사인 해양, 문화, 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임
-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 지역 간의 경제무역, 청년, 문화관광, 해양산업, 미래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다분야에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2 출장 지역

- 중국 산둥(山东)성 지난(濟南)시
 - 산둥재경재학교: 인문 교류
 - 산둥사회과학원: 국제세미나 개최

3 출장단

□ 제주연구원 관계자 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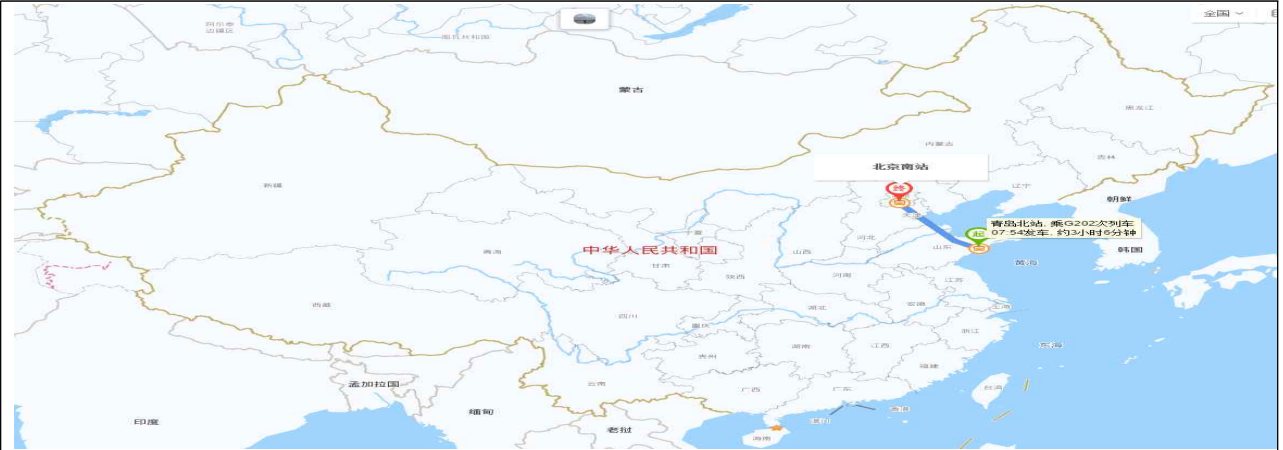
- 양덕순 원장
- 강진영 선임연구위원
- 고봉현 연구위원
- 정지형 연구위원
- 손상훈 연구위원
- 좌민석 연구위원
- 강영준 연구위원
- 이중화 부연구위원

4 출장 일정

일 자	방문국	주요 일정
8. 28.(수)	한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 인천 → 제남- 06:30-07:40 제주-김포, 대한항공 KE1118- 11:45-12:25 인천-제남, 산둥항공 SC8002- 입국 수속 및 이동(30~50분)
8. 29.(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둥대학교 : 방문 및 좌담회• 산둥사회과학원 : 공동 세미나
8. 30.(금)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시찰: 산둥성 문화유산 및 산업현장
8. 31.(토)	중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10-10:45 제남 → 인천, 산둥항공 SC8001• 14:55-16:05 김포 → 제주, 대한항공 KE1113

5 방문지역 개황

□ 중국 산둥성 지난(济南)



- 위치 : 중국 산둥반도 서부에 위치
- 날씨 : 온대계절풍, 연평균 기온 14.5° C, 연평균 강수량은 669.6mm
최난월 평균기온 27.4° C (7월), 최한월 평균기온 -0.7° C (1월)
※제주 기온: 3~11℃(3월 9일 기준)
* 8/28-31: 최고 32℃, 최저 20℃ 예상됨
- 면적 : 육지면적은 814km², 구릉지대면적 약 3,000km², 평원면적은 5,000km²
- GDP : 1조 2,757억 위안(240조 4,777억원, 2023년)
- 경제성장률 : 6.1%(2023년)
- 1인당 GDP : 12.83만 위안(약 2,419만원, 2022년)
- 인구 : 943.7만(2023년 기준),
- 관할지역 : 스중구·리샤구·텐차오구·화이인구·리청구·창칭구·장추구·지양구·라이우구·강청구·핑인현·상허현
- 주요산업 : ▲빅데이터 및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및 첨단 장비, 고품질 강철 및 첨단재료, 바이오 의약 및 빅 헬스, 집적 회로, 우주 정보, 신에너지 자동차, 의료 진단 장비, 바이오 의약 재료 및 세포 유전자의학 치료
- 한국과 관계 : ▲자매도시: 수원(1993), 서울 강남구(2007), 경상남도 하동(2010)
▲우호도시: 대전(2011), 안동(2014), 포항(2020)

II

출장내용

1 산둥재경대학교(山东财经大学)

□ 개요

- 일시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10:00~12:00
- 장소 : 산둥재경대학교 회의실
- 주소 : 山东省济南市历下区二环东路7366号
- 참석자: 산둥재경대학교 씨에션양(谢申祥) 부총장 외 분야별 교내 연구원장·관계자 및 제주연구원 출장단

①기관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②좌담회 후 답례품 증정



③단체 촬영



④교내 미술관 참관



□ 주요 연수 내용

- 산둥재경대학교는 중국 재정부, 교육부, 산둥성인민정부가 함께 건설한 대학교로, 산둥 경제학원과 산둥 재정학원 2곳이 병합하여 건설된 대학임
 - 1952년 산둥재정경제학원이 설립되고 문화대혁명 시기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1978년 산둥경제학원, 1986년 산둥재정학원이 재개하였으며, 2011년 산둥경제

- 학원과 산둥재정학원이 합병되고, 2012년 6월 9일 산둥재경대학교가 설립된 것임
- 산둥재경대학교는 공식 설립연도는 2012년이지만, 실제 이미 오래전부터 산둥성 및 국가의 경제, 재정 등 영역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산둥재경대학교는 응용경제학, 경영과학 및 공학, 통계학 박사 후 연구 이동소 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응용경제학, 경영학, 경영과학 및 공학, 통계학 등 1급 학과 박사학위 인증권한 4개, 1급 학과 석사 학위 인증권한 11개, 석사 전문 학위 종류 20개를 보유하고 있음
 - 응용경제학, 경영학, 경영과학·공학 등 3개 학과는 산둥성의 우수학과 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응용경제학은 ‘선도 학과’로 2023년 중국학과 순위 중 응용경제학과 경영과학 및 공학은 상위 12%에, 경영학은 상위 20% 수준임
 - 또한 공학, 컴퓨터과학, 사회과학은 ESI 글로벌 상위 1%에 진입하였으며, 58개의 학부 전공 중 국가급 일류 학부 전공은 29개, 성급 일류 학부 전공은 20개로, 국가급 일류 학부 전공의 비율이 성급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음
 - 현재 1,690명의 전임 교수가 있으며, 이 중 교수 338명, 부교수 676명,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는 1,059명 수준임
 - 박사생 지도 교수가 121명, 석사생 지도 교수가 709명이며, 국가급 인재 프로그램에 선정된 교수는 19명으로 전국 우수 교사 등 국가급 명예를 수상한 교수가 16명, 국무원 정부 특별 수당을 받는 교수가 17명에 달함
 - 최근 3년 동안 학교는 480여 개의 성부급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함
 - 다수의 국가급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구 성과는 정부와 학계에서 중요한 기여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2023년에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처음으로 상위 1,000권에 진입(910위)에 진입하고, 국내 175위, 재정 관련 대학 중 4위를 점함
 - 이외에도 산둥재경대학교의 「산둥금융경제발전연구원, 경제연구센터」
 - 산둥금융경제발전연구원은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시되는 농업대출, 농업보호법, 그리고 중소기업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음
 - 경제연구센터는 정책연구 및 사회연구를 들 수 있으며, 화폐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이 산둥 인문사회에 어떻게 성장 동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향후 산둥재경대학교의 주요 연구 영역과 제주도(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간) 공동 연구 가능 분야 탐색 및 협력을 논의하기로 함
 - 농촌재개발연구센터, 경영대학원 중 **관광경영학과**, 경영대학원의 저탄소 경제 및 관리학과, 학부과정 중 경제학과의 핀테크, 도시관리, 산둥재경대학교 내 예술학원 등 관련 향후 지속 소통 및 협력의 강점을 찾기로 함

2 산동사회과학원(山东社会科学院)

□ 개요

- 일시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14:00~17:30
- 장소 : 산동사회과학원 9층 회의실
- 주소 : 山东省青岛市市南区金湖路8号
- 참석자: 산동사회과학원 웬홍잉(袁红英) 원장과 발표자 및 토론자 등 관계자 및 제주연구원 출장단

①포럼 시작: 개회식 및 상호 인사



②포럼 마무리: 단체 촬영



□ 주요 연수 내용

- 제주연구원과 산동사회과학원은 두 지역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2024 제주-산동 협력발전포럼」을 개최함
 - 향후 제주연구원과 산동사회과학원은 지속적으로 매년 ‘제주-산동 협력발전포럼’을 개최를 계획함

○ 「2024 제주-산동 협력발전포럼」의 주요 일정은 이하와 같음

<표> 「2024 제주-산동 협력발전포럼」 관련 일정

구분	시간	내용	사회
등록	13:40~ 14:00	참석자등록	
개회식	14:00~ 14:15	-개회사: 웬홍잉(袁红英) 산동사회과학원장 -환영사: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주제 발표	14:15~ 14:40	주제1: 한중 해양협력체제 프레임하의 제주-산동 협력방향 -박문진 산동사회과학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부연구원	유쇼닝 : 산동사회과학원 국제정치경제연구소 부소장
	14:40~ 15:05	주제2: 제주 해양정책 현황과 제주-산동 협력방향 -이중화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15:05~ 15:30	주제3: 제주-산동 문화관광 협력강화에 관한 소고 -슈젠용 산동사회과학원 문화연구소 부연구원	
	15:30~ 15:55	주제4: 제주 해양문화 현황과 산동 해양문화 협력방안 -좌민석 제주연구원 기반산업연구부장	
	15:55~ 16:20	주제5: 산동 신에너지정책과 한중 협력 -베쇼우둥 산동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연구원	
	16:20~ 16:45	주제6: 제주에너지 전환정책과 제주-산동 협력방안 -강준영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장	
토론 질의 응답	16:45~ 17:15	-고봉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이밍제 중국자연자원부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연구원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유 강 산동사회과학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연구원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강진영 :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폐막식	17:15~ 17:30	폐막/기념촬영 -취이평샹(崔凤祥) 산동사회과학원 부원장	

① 개회식



- 두 연구기관장은 「2024 제주-산둥 협력발전포럼」 개최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더욱 다양한 협력, 체감이 가능한 협력, 지속가능한 협력을 방향으로 연구원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함

② 주제 발표

- 주제: **한중 해양협력체제 프레임하의 제주-산둥 협력방향**
- 발표자: 박문진 산둥사회과학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부연구원

- 지방정부간 해양협력체제 구축
 - 제주-산둥 해양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 간 해양경제 협력 및 발전 추진
 - 산둥·제주 경제협력 계획 수립으로 미래 해양협력 유도
- 해양 관련 싱크탱크간 교류 플랫폼 역할 강화
 - 해양 정책 연계 연구 강화, 정부 정책 결정 기억 가능 연구보고서 제공
 - 해양 이슈 및 난제 연구 강화로 현안 해결 방안 제시
 - 연구성과 상용화 체제 관련 교류 강화로 생산력 제고 촉진
 - UN의 해양과학 10개년 계획(UN Ocean Decade) 관련 사업 개발과 협력 강화
- 중점 협력 방향
 - 해양산업의 저탄소 녹색발전과 디지털화
 - 스마트어업, 해양문화관광(크루즈), 해양 바이오의약 분야 협력
 - 기후변화 대응 도서 해안벨트 관리 및 신에너지 발전 정책, 기술 교류
 - 해양 생태계 보호 및 해양 쓰레기(어업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처리 협력

• 주제: 제주 해양정책 현황과 제주-산동 협력 방향

• 발표자: 이중화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 해양 양식 기술 및 자원 관리: 기술과 경험 공유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실현
 - 산동은 중국의 해양 강성(强省)으로 어업 및 양식 부문의 높은 생산규모와 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바다목장 등 상호 교류 가능
- 해양관광 및 문화 교류로 상호 방문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호 소통 강화를 추진해야 함
 - 지속 가능한 인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만족도 조사 등 추진
-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공동연구, 기술 협력 등 해양 에너지 자원의 효과적 개발 및 활용을 모색해야 함
 - 「제주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산동성 인민정부 산동성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계획(2018~2028년)」 등 정책 연계성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으로 탄소중립 동반 협력을 추진해야 함
 - 제주의 블루카본 정책, 맹그로브 숲 확대, 산동(엔타이, 웨이하이 등) 블루카본 정책과 관련하여 공동 연구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해양 바이오 산업 개발과 관련하여 협력을 모색해야 함
 - 제주는 해양바이오 산업 최적지로 2030년 1조원 시대를 목표하고 있으며, 산동은 해양신홍산업으로 바이오의약, 해수담수화 등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라 할 수 있는 분야임
- 해양 교육 및 인력 양성으로 두 지역의 학생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한 실무형 인력 양성 교육과 인턴십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함
 - 제주와 산동성의 교육청 관련 기관의 협력 기반 상에서 인재 양성의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 및 기업 간 인재 양성으로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주제: 제주-산동 문화관광 협력강화에 관한 소고

• 발표자: 슈젠용 산동사회과학원 문화연구소 부연구위원



- 산동과 제주는 연구 프로젝트, 포럼, 협력기금 조성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역사교류, 문화유산 보호, 문화관광산업 발전, 정부 및 민간문화 교류 심화를 중심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음

- 제주-산둥 문화관광포럼 상시 개최와 연구자 상호 방문 및 연구지원형 문화관광협력 기금 공동 조성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산둥과 제주를 공동으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금 신청, 순회 전시, 문화유산 보호정책 공유, 보호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중국 시안 아시아문화유산보호연맹 설립과 회원국 문화재보호 프로젝트 협력 지원(8,800만 위안 아시아문화유산보호기금 조성)을 통해 공동 발굴활동 지원을 강화
 - 양 지역 문화재 순회 전시로 대표 문화 유물 해외를 통해 주민에게 체험 기회 제고 모색
 - 문화유산 보호 청년 인재 양성 공동 실시 및 보호기술 연구개발 공동 진행하고 법적 협력 체계 구축 추진 등을 고려
- 인바운드 관광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광 상품 다양화, 이동 편리성, 결제 편리화, 관광 서비스 제고 등을 통해 상호 방문의 선호도가 높은 관광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관광 상품 측면에서 상품체계 최적화, 관광기업 서비스 개발 유도, 힐링형·맞춤형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 이동 편리성으로 교통 편의성, 비자 면제 기간 연장, 항공 증편, 주요 중심지 및 명승지 간 교통 연계성 강화, 크루즈 입도객 교통 연결 메커니즘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결제 편리성으로 주요하게 선(先)모바일 결제, 후(后)신용카드 등 결제 환경조성이 필요함
 - 관광 컨설팅으로 여행가이드의 한국어, 중국어 교육 강화, 도로, 관광지 등 외국어 표지판 및 안내 수준 제고 및 스마트 관광 서비스 디바이스 개발로 가이드 없이 개별 자유 여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공동 마케팅과 설명회 개최 강화 측면에서 문화관광 박람회 및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 양 지역 여행사 팸투어 실시, 여행사 맞춤형 마케팅 지도 및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함
 - 제주-산둥 관광소비보고서 공동 연구 및 발간, 문화센터, 해외관광진흥센터 등 현지 사무소 설립 지원
 - 주요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 양 지역 문화관광 홍보 지원 및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제: 제주 해양문화 현황과 산둥 해양문화 협력방안

• 발표자: 좌민석 제주연구원 기반산업연구부장



-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양 지역 특색의 해양문화관광의 콘텐츠를 발굴 및 관리하여야 함
 - 제주의 경우 해녀문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드라마, 영화 등 더욱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진 사례를 들 수 있음

- 영상 콘텐츠의 홍보성을 고려하여, 유명 배우를 섭외한 산둥성의 특색있는 해양 문화 (장보고 등)을 발굴하고 드라마 및 영화 제작을 통해 상호 소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음
- 제주-산둥 관광트렌드를 상호 교류하고, 이를 고려한 두 지역의 젊은 세대를 위한 해양 관광지 조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중국 산둥성 룡청시는 전통 해초집 8만여 개, 다수 관광호텔 및 관광구역이 존재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의 관광 선호도와 부합하는 상황임
-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여, 관광 상품의 활성화 및 상호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산둥-제주간의 신규 항공편 취항 및 증편을 추진하여 문화와 관광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불 편리성 촉진이 필요함. 제주와 중국 국민들은 현금 대신 간편결제시스템(카드, 모바일결제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산둥성과 제주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 상이하여 결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최근 트렌드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산둥성과 제주의 문화관광 박람회 및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제: 산둥 신에너지정책과 한중 협력

· 발표자: 배쇼우등 산둥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연구원



- 산둥성은 신에너지 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①신에너지 발전, ②신에너지 장비 제조, ③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점 분야로 「녹색 저탄소 전환, 혁신 드라이브형 발전, 산업간 상생발전, 개방 협력 심화」를 4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13차 5개년 계획 이후, 산둥의 신에너지 설치용량 규모는 연평균 9.5% 성장하였으며, 풍력과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저장 등 양호한 발전을 실현 중임
- 한중 신에너지 협력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들 수 있음
 - 기회요인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한중 고위급 교류 강화, 한중 에너지기업의 상호 보완성과 높은 잠재력을 들 수 있으며, 도전 과제로 기술 장벽과 시장 진입 문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한중 정책 변화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음
- 한중 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으로 「①정책 소통 및 협의 강화, ②기술 협력과 연구개발 심화, ③시장 협력 영역 확대, ④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들 수 있음
 - 정책 소통으로 양국 정부는 신에너지 분야 협력 촉진 필요, 한중 기업은 공동으로 R&D 센터 설립하여 핵심 기술 공동 강화, 신에너지 설비 및 응용의 포괄적인 협력 촉진, 개방성과 편의성 제고로 양국 기업의 심도 있는 협력 프로젝트 수행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주제: 제주에너지 전환정책과 제주-산동 협력방안

• 발표자: 강준영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장



- 산동성은 경제·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2.6%로 중국 내 최고 수준임
 - 2023년 기준, 산동성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태양광 56GW, 풍력 26GW이고, 풍력 중 해상풍력은 4.72GW를 보유하고 있음
 - 산동성은 중국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발전용량을 보유한 지역으로 2030년까지 35GW로 확대할 계획임
 -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수소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 제주의 원해 지역 풍력발전 설비 구축에 기술 협력이 가능함
 - 산동성은 연안에 풍력발전설비가 이미 포화된 상태로, 원해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음
 - 제주의 해상풍력은 연안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단계로, 산동성의 기술과 경험이 앞서 있으며, 노하우를 제주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주는 그린수소 생산설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동성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그린수소로 전환하는데 있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내 분야별 상호 정책 및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교류 촉진, 포럼 공동참여 등을 통한 정책 홍보 효과 제고 및 컨소시엄 및 지역 핵심 정책과 연계성 제고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산동성은 해상풍력을, 제주는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기술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음
 - 그린수소 분야에서 도내 기업의 산동성 진출과 전문인력 교류를 추진할 수 있고,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과 연계하여 제주-산동 청정에너지 세션을 개최할 수 있음
 - 해상풍력 분야에서 도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산동성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할 수 있고, 산동성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정책, 기술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RIS사업과 연계하여 제주대학교와 산동성 내 대학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인력 교류와 학술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② 토론 · 질의 응답

· 사회자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	------------------

· 토론자		고봉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	----------------

- 1992년 한·중 수교이래, 한·중 양국은 정치·경제·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모든 교류·협력의 성과가 모두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낸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을 때 국가간에 다양한 민감한 사항 때문에 각 분야의 교류·협력이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됨
 - 그래서 오늘의 제주-산동성간 협력발전 포럼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은 국가간의 이해관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오늘의 주제 중 하나인 해양분야도 양국간의 교류·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해양분야의 양국간의 교류협력은 수산업, 특히 어업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는 사실상 크지 않은 상황임
 - 이는 양국간의 민감한 사항, 즉 어업분쟁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방정부간의 해양협력을 어업분야에서 보다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특히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제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제주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한민국 해양면적의 24.4%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고 있을 만큼 제주에 있어 해양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 5년마다 제주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주는 수산양식업 이외에도 해양관광산업,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해운물류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주와 산동성 간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보다 확대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한·중·일 3국간의 해양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에,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라는 국제기구를 제주에 유치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그러나 당시 한·중·일 3국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본 사업이 좌초된 적이 있었음
 - 15년인 지난 현 시점에서 당시의 경험들을 거울삼아,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한·중·일, 한·중, 제주-산둥성 간의 보다 발전된 교류·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023년 말, 한중 정책세미나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당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함
- 오늘 6분의 전문가께서 해양분야 관련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이야기 주셨는데, 의미가 높다고 생각함
- 제주는 대규모보다는 해양관광, 해양문화 등 협소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함
- 산둥성은 동아시아해양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주 역시 참여하고, 제주가 동 협력에서 ‘제주세션’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강영준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주는 연안지역에 해상풍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임
 - 산둥은 연안지역은 이미 포화가 되어서 원해지역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해상풍력은 산둥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추가적으로 블루카본과 관련해서 상도라는 지역이 중국의 생태문명 시범구로 지정되었으며, 제주가 이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올 것임

• 토론자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해양분야 지방정부 간 협력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경우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중 필요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 가능함
 - 현재에도 상당수 권한이 이관되어 있는 상황임
- 해양분야 전기추진선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R&D) 및 정책개발 공동 추진을 모색할 수 있음
 - 근해 어업을 수행하는 선박 대상
 - 관련 대학도 함께 참여
- 현재 수집하고 있는 지방정부 법정계획에 국제교류를 새로운 분야 혹은 추진 방안을 포함하는 것 역시 필요함
- 관광과 관련해서 산둥성에서 제주를 소개하는 장소, 제주에서 산둥성을 소개하는 장소 혹은 이벤트 추진 역시 고려할 수 있음
- 산둥성 방문객에게는 제주 방문 시 할인 제공, 제주 방문객에게는 산둥성 방문 시 할인 제공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동북아 국가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린 수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함
 - 그린 수소 생태계 구축: 생산, 활용, 유지, 보수 등 포함
 - 수소 모빌리티 구축 방안
 - 수소에너지 경제성 확보 방안

• 토론자



유강 산동사회과학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연구원

- 국제협력은 기본적으로 국가차원과 지방차원의 두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차원에서 국제협력은 산업이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와 산동의 협력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산업분류 중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제주-산동의 협력이 신산업 초점이라면, 해양 신산업은 에너지, 담수화, 해양바이오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산업 규모적인 측면에서 산둥은 제주보다는 훨씬 크지만, 제주는 정책적 집중 하에 수소, 청정에너지 등 신에너지 분야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산둥과 제주가 해양산업, 새양스카트산업, CFI 등 정책 교류, 청정에너지 분야의 상호 협력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임
- 두 번째 협력 분야는 블루카본 분야를 들 수 있음
 - 금일 토론의 중심이 신에너지, 혹은 청정에너지 쪽에 다소 집중되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블루카본 역시 좋은 협력 주제가 될 수 있음
- 세 번째 협력 분야는 해양도시라고 할 수 있음
 - 산둥의 칭다오, 옌타이 등에 해양도시가 있으며,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제주와 산둥이 협력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저는 약 30년간 해양정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동 사항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하와 같음
- 매년 1-2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방법, 연구원 간 공동연구팀을 만들어 공동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 및 상호 파견 및 현지 근무 등 추진을 모색할 수 있음



□ 산둥 - 제주 해양문화 협력 : 크루즈를 중심으로

- 제주와 산둥의 해양문화 협력은 크루즈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최근 크루즈 요트 산업 협회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크루즈 관광 시장은 올해와 내년에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산업 발전 단계에 진입 할 것을 발표함
 - 상하이, 광둥, 선전 등 국제 크루즈 입항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중국 크루즈 여객 수송 규모는 5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회복하였고, 로얄캐리비안은 2025~2026년 기간 대 중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 발표함
- 칭다오의 크루즈의 산업적, 정책적 발전 기회가 높아 이에 대한 협력 기회 및 협력 확대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칭다오 크루즈 모항은 22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정박 가능하며, 연간 15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음
 - 칭다오는 네 번째 “중국 크루즈 관광 개발 실험구”로서 국가 크루즈 관광 산업의 교류 및 산업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 2024년 5월 15일부터 크루즈선으로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국내 여행사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단체는 중국 연안 13개 크루즈 항구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함
- 2024년 6월부터 11월 칭다오에서는 17척 크루즈 항로 개설, 2024년 23개의 크루즈 운항, 9월이후 6번 제주 기항 예정(중착지는 일본의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등임)
- 제주와 산둥 간 크루즈 산업 협력을 위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① 칭다오발 크루즈 관련 선사와 협의를 제주 부스 설치, ②이를 통한 제주지역 상품 홍보와 판매 진행, 지역 브랜드 인지 제고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즉 크루즈를 기점으로 ‘크루즈+지역+소비’가 결합된 지역 브랜드 구축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제주연구원과 산둥사회과학원 간 협력에 있어, 2004년부터 산둥사회과학원과 경기연구원 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진행됨과 6개월 이내 동지역 방문 불가 등 제도적인 제약 등을 고려하여 3자 기관 국제정기교류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양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상호 인력 파견 추진을 통해 항공 노선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 물류노선 신설, 제주상품 수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산둥성 지역에 대한 제주이미지, 소비시장 등 현장연구가 필요하기에, 산둥사회과학원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파견을 통한 자료수집, 심층인터뷰, 시장조사 등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③ 폐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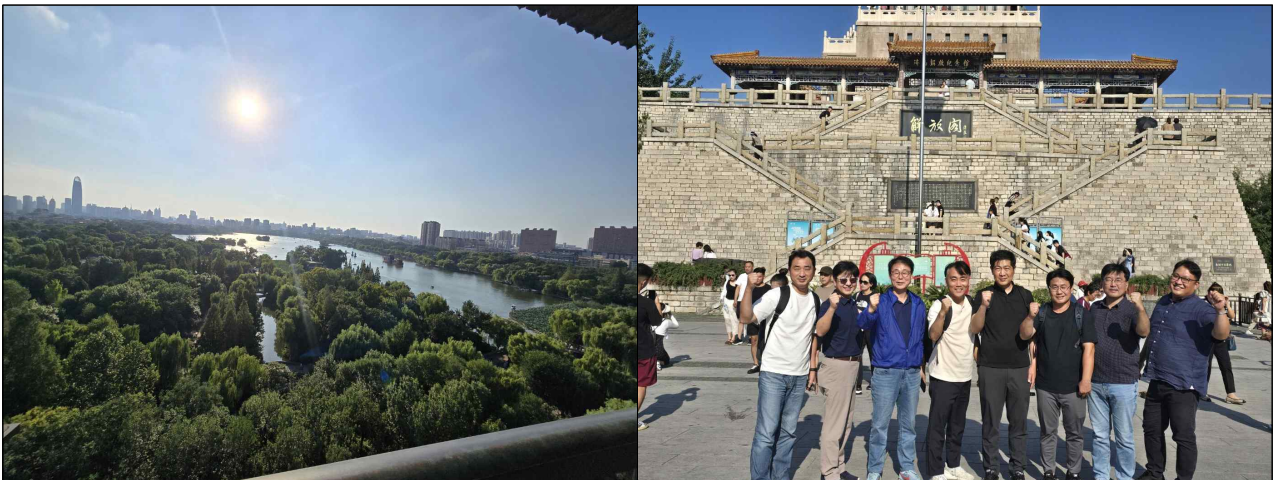


- 두 연구기관 MOU 체결 및 협력 확대 이후 첫 번째 포럼이었으며, 여섯 분의 발표를 통해 많은 배움과 논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으며, 다섯 분의 토론은 실천 가능한 많은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높았음
- 금이 포럼에서 제기된 좋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두 지역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3 현지시찰

□ 대명호

-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13:00~
- 지역 : 지난
- 소개 :
 - 대명호는 1957년 정식으로 공원을 조성된 자연호수로 현재 지난의 3대 역사적 명소임
 - 수면 면적은 57.7 헥타르, 평균 수심은 2-3미터임
 - 초연루는 대명호에 위치하며 원나라 때 건설된 51.7m의 7층의 누각임



□ 태산국립공원

- 일시 : 2024년 8월 30일(수) 10:00~
- 지역 : 지난
- 소개 :
 - 중국 오악(항산, 숭산, 형산, 화산, 태산) 중 으뜸으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중국 5A급 관광지로 지정
 - 2002년 중국 10대 문화 명산으로 선정, 2005년 국가 지질공원 선정, 2006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됨
 - 최고봉은 옥황봉으로 해발 1,535m임
 - 중천문(中天門)~남천문(南天門) 구간은 일명 '십팔반(十八盤)'이라 불리는 곳으로, 올라가려면 18번은 넘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으로 길이 800m, 계단의 수는 1,600개 정도임

- 태산은 산아래 천외촌(天外村)부터 일천문(一天門)을 지나 정상까지 계단 총 7,800여 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음(약 4-6 시간 소요)
- 산등성 사회과학원 기준 약 72km(1시간 30분 소요)



1 산동재경대학교: 협력 체결 및 확대 필요

- 산동재경대학교는 중국 및 산둥 지역에서 우수 대학으로 수준 있는 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향후 제주도와 협력이 가능한 산둥의 중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협력 가능한 부분은 분야별 공동연구 관련 트랙-1, 학생 및 전문가 교류 관련 트랙-2를 들 수 있음
 - 공동연구 트랙-1 관련 사례로 농촌재개발연구센터 관계자는 한국의 농촌 발전정책을 우수 사례로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제주지역 농가 지원 및 농촌지역 관광활성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공동연구 트랙-1 관련 사례로 중국국제저탄소전공이 있어, 제주-산둥 교류협력 분야 중 「저탄소 경제」가 상위로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제주와 산둥 두 지역 간 저탄소를 위한 정책 교류 및 협력 방안과 대외 전략 등을 공동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학생 및 전문가 교류 트랙-2 관련 사례로 산동재경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 관광경영학 전공이 있으며, 상호 관광 및 인문교류 확대를 위한 전문가 및 학생 간 교류 및 협의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제주와 산둥의 교류 확대의 기준 조건으로 두 지역 간 왕래 인구의 증가가 관건이며, 관광 분야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상호 조사 등을 통해 제주와 산둥 두 지역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상호 방문지가 될 수 있는 연구 진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와 산둥 지역 내 공간 상에서 몇몇 포인트를 구축하고 상대지역의 해당 포인트를 방문 완수 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두 기관의 많은 관계자들은 향후에도 공동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기회를 만들어 방문 및 조사 등 협력을 도모하는 데 공감함

2 산동사회과학원: 실질적 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 고도화

- 제주연구원과 산동사회과학원은 2024년 들어 다수의 만남과 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진행함
 - 두 연구기관은 제주, 산동 지역의 정책 Think Tank로서, 금년 제주-산동 교류주간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협력 방향에 부합하는 협력을 체결한 바 있음
- 제주연구원과 산동사회과학원은 협력 확대를 방향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제주-산동 교류주간의 성과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와 산동은 단계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임
- 현재 기준, 관광교류의 확대가 교류 확대의 단계적인 조건 사항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와 산동은 우선 관광 및 인적교류의 확대에 방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관광교류의 확대와 관련하여 세부 방안과 평가, 상호 조사를 통한 만족도 제고 및 예로사항 개선 등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협력 구조 구축이 필요함
 - 양 지역의 관광지 연계형 인센티브 지원, 동북아 공동 관광 홍보, 상호 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동조사 등이 추진될 수 있음
 - 또한 제주와 산동의 공통적인 미래 지향적 정책에 있어 상호 소통 및 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협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임

-끝-